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김 홍 재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강 경 식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명 지 대 학 교 대 학 원

I. 서론

새터민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이 초기입국자에게는 정권차원의 지원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나,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수의 북한이탈과 국내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여러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입국추세를 감안하면 수년 내에 2~3만명을 상회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자립 지원문제가 크게 대두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동안의 지원위주의 정책영향으로 새터민이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배울수 있는 정보화(컴퓨터)교육, 요리, 미용, 중장비분야(남한에서도 선호하는 분야임) 수강과 정부지원 중단을 우려하여 고용보험적용사업장 등 수익이 노출되는 취업을 기피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05년도부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새터민을 위한 기초직업적응훈련과 전문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터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취업능력개발이 정부와 민간단체 및 직업훈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문제점과 직업능력개발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새터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1. 새터민 직업훈련 지원제도

가. 정부(통일부)에서는 대량입국이 시작된 90년대 후반부터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및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1999.12.28) 및 시행령 제32조(1998.12.3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새터민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을 2개월에서 3개월과정으로 개편 운영하고, '05년부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방안으로 취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6개월이상)을 수강하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수당을 지급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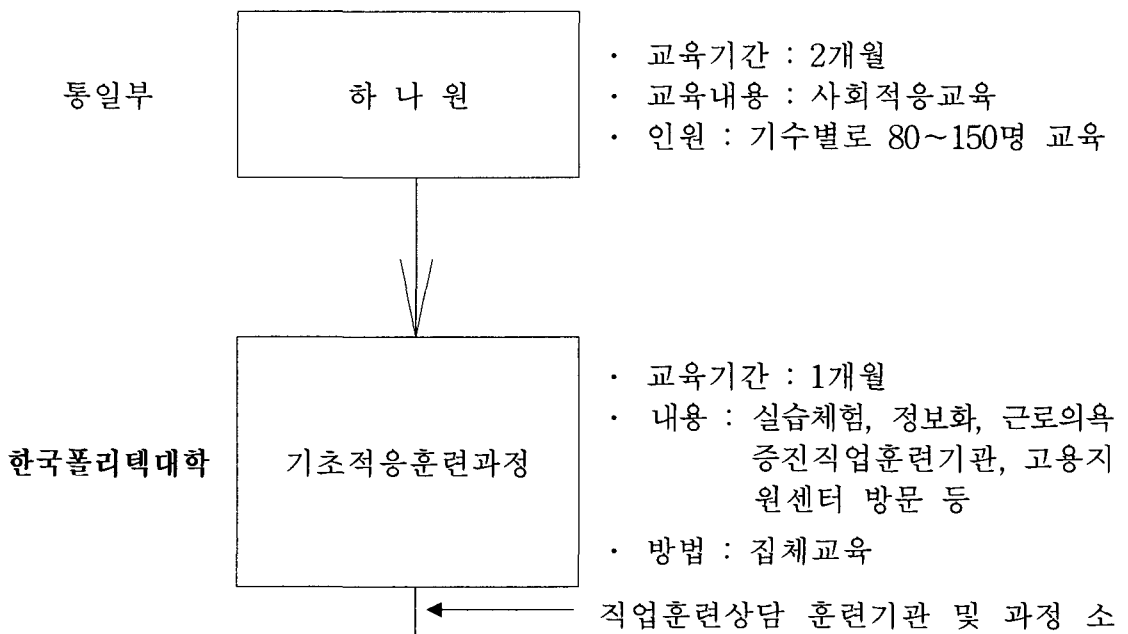
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후 1년이상 3년까지 장기간 취업지속시 연차적으로 추가 장려금을 1년 경과시 200만원, 2년 경과시 300만원, 3년 경과시 40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형으로 전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자격증 취득⇒취업알선으로 연계되는 새터민 정착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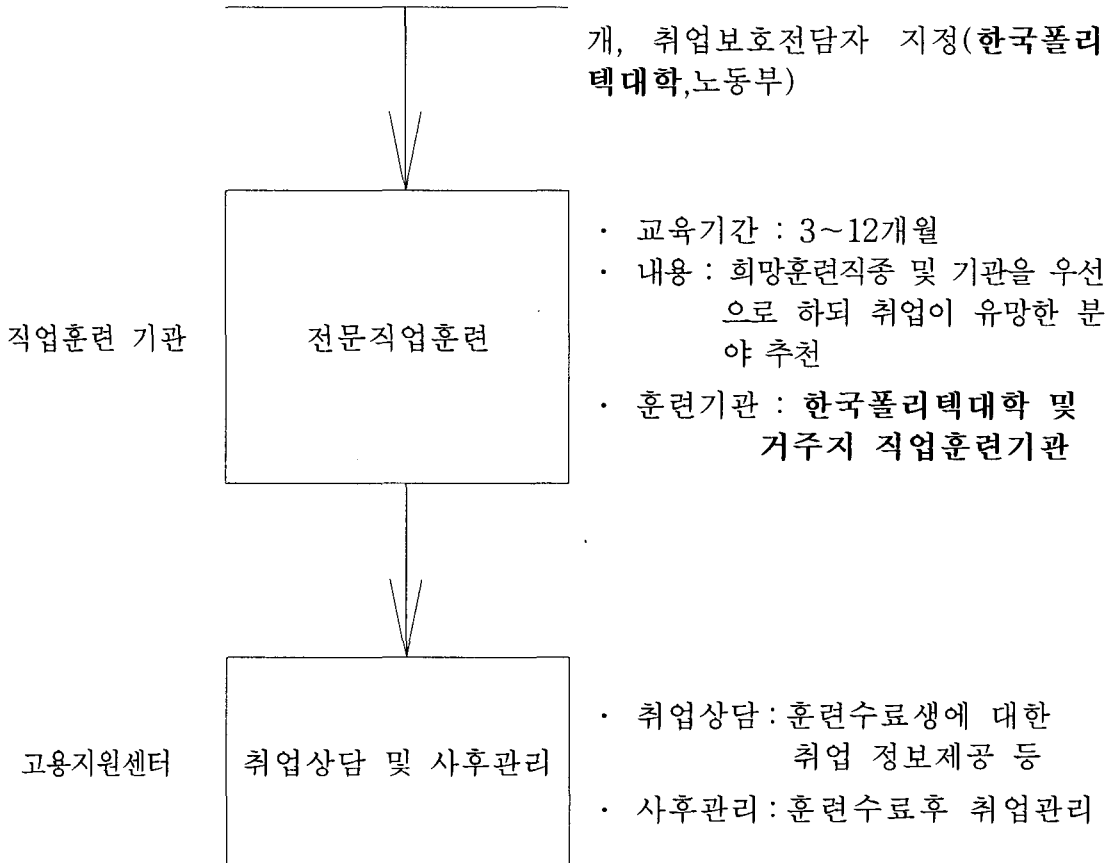
나. 정부(노동부)에서는 새터민의 직업훈련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기초학습능력부족 등 부적응문제를 해소하고, 10%대의 낮은 취업률을 높이고자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시행지침(‘04.12.23)”을 마련하고 기초직업적응훈련과 전문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기초과정에서는 장차 직업훈련과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소양과목을 이수(130시간)케 한 후, 전문직업훈련과정으로 연계시켜 평생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직종으로 6개월이상 장기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새터민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노력 하고 있다.

2. 새터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

○ 정부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하여 하나원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을 개설[1개월(130시간)]하여 근로의욕증진, 실습체험, 멘토, 전문훈련과정 안내를 하고 있다.

<표-1, 새터민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Ⅲ. 새터민의 직업훈련 실태 및 문제점

1. 새터민 직업훈련 실태

가. '02년 이후 새터민 입국자가 증가하여 직업훈련의 대상인원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간의 직업훈련과 취업실적이 저조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부적응으로 인하여 중도탈락률이 높고(29%), 수료 후 취업률이 낮은 점(12%)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한국폴리텍대학)과 전문직업훈련과정(한국폴리텍대학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단계로서 훈련참여가 낮다.

나. 최근의 입국자 특성은

새터민의 국내입국전 해외 체류기간이 장기화(평균 4년)되고, '02년부터 여성입국자 비율이 급증하고, 새터민입국자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탈북 및 해외체류과정을 감내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전체 입국자의 73.3%)

다. 새터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률이 낮은사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고, 학습내용이 북한과 상이 하고, 학습의욕저하로 남한적응을 위한 기초학습능력이 저하되며, 폭넓은 직업의 세계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고, 자본주의사회체계에서의 성장방법에 취약하다. 그리고, 남한주민과 경쟁에서 열악하고, 북한이탈과 장기도피생활에 따른 육체·정신적 질환 등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본다.

라. 또한 수도권외의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나,

○ 남한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정보처리, 조리, 중장비 등)의 직업훈련 수장으로 취업의 어려움 가중

<표-2, 국내노동시장 인력부족 직종 및 새터민 선호직종>

구 분	직 종
선호직종	컴퓨터, 미용, 전기, 용접, 요리, 전산회계, 중장비운전, 등
직업훈련 주요참여 직종	정보처리, 조리, 미용 등 서비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종	용접, 자동차정비, 기계장치조작, 단순노무, 도장, 생산직 등
인력부족직종(중소기업체)	기능직, 단순노무직,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등 생산직

※ 한국산업인력공단 ‘새터민 국가기간산업인력화방안’(‘03.11)

※ [2004 노동부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새터민직업훈련 및 고용촉진방안’(‘04.10) 국회의원 이경재

2. 거주 및 취업보호단계에서의 문제

○ 거주지 배치후, 각 보호담당자별 역할이 주어지며, 취업보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거주지보호자는 종전의 경찰관서에서 담당하였으나, 대한적십자사에서 보호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거주지 보호담당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빈약하여 지원의 한계가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지원은 인력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취업지원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3. 새터민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 하나원 수료 후 새터민이 사회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심화와 자본주의사회체계에서의 성장방법에 취약하고 폭넓은 직업의 세계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고,

○ 남한과 교육내용의 상이 및 교육의욕저하로 남한적응 과정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고 북한이탈과 장기도피생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질환, 남한주민과 경쟁에서 열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직(29%)»교육(21%)»생계(19%)»외로움(17%) 순으로 답했고 정부의 정착지원 중 가장 절실한 문제로는 취업알선(42%)이 현금지원 확대(21%)와 교육지원(16%)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의미하다고 사료되나, 위 네가지 항목의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새터민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취직이나, 취업처에서의 직업능력인정을 받지 못하여 취업이 어렵고 직업능력이 모자라 부적응으로 인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기업에서 채용한다고 해도 지원금에 의존하는 실태이다.

- 이러한 면에서 새터민에게 직업능력개발은 꼭 필요하다.

IV. 새터민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1. 직업훈련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하나원에서의 사회기초적응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적응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여 능력있는 일꾼으로 새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야 사회적응이 용이하고, 정착 성공률이 높은 점을 안내하여야 한다.

-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에게 입국심사 및 사회기초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함께 살아야하는 의무와 권리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한다.

○ 현재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하여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 하에서의 생활습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고 경제적 자립보다 다양한 지원에 대한 의존

적 성향을 자활·자립을 위한 노력의지로 바꿀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새터민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에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요구하여야 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진입 전문직업능력을 갖춘 후 남한사회에서 경쟁하며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사회배출 되어져야 순조로운 사회적응이 될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장특성, 진로희망, 기초수학능력, 과거경력,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간과 직종이 선택되어져야 하고,

- 진학 및 취업희망자는 가급적 국가기간산업분야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시설, 장비, 교수능력과 취업, 사후지도, 책임성이 강한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는 훈련과정 승인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인력부족 분야)를 우선 승인하여주고 양질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독려하고, 주말과정 및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과 새터민 별도과정의 훈련 성과가 제고되도록 훈련성과급·기초교과과정·특별과외시간 제도의 활용 활성화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직업상담 강화 등 개인의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 하나원에서의 기초상담을 통한 기초진로지도단계와 기초직업적응훈련 단계에서의 2차 진로지도(심층상담)를 통한 직업분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전문직업훈련 후 취업알선단계에서의 3차 상담에서는 새터민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걸맞는 직장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이 체계화되어야하며, 하나원에서의 기초상담자료는 취업알선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협조하여야한다.

V. 결 론

새터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회기초적응교육과 기초직업적응훈련, 전문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새터민이 입국과 동시 사회기초적응교육(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한국폴리텍대학에서 1개월), 전문직업훈련과정(6개월이상)을 의무화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